

# 목 차

프롤로그-----	P03
1부 — 프레임이란 무엇인가-----	P07
1장. 네 개의 프레임-----	P07
2부 — 문장을 보는 눈 (T-R 심화) -----	P11
2장. T-R의 네 가지 패턴-----	P11
3장. T-R이 포착하는 것-----	P19
4장. 복합 지문에서 T-R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P21
5장. 기출로 증명한다 — T-R-----	P23
3부 — 구조를 보는 눈 (RST 심화)-----	P35
6장. RST의 세 가지 관계-----	P35
7장. RST가 포착하는 것-----	P38
8장. 복합 지문에서 RST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P40
9장. 기출로 증명한다 — RST-----	P43
4부 — 전체를 보는 눈 (거시구조)-----	P56
10장. 문단이 모이면 무엇이 생기는가-----	P56
11장. 거시구조가 보이면 요약이 달라진다-----	P60
12장. 기출로 증명한다 — 거시구조-----	P63
5부 — 논리를 보는 눈 (논증구조)-----	P80
13장. 글쓴이는 왜 그렇게 주장하는가-----	P83
14장. 평가원이 논증구조를 좋아하는 이유-----	P89
15장. 기출로 증명한다 — 논증구조-----	P92

6부 — 네 눈을 동시에 쫓다-----	P111
16장. 교사의 시연-----	P113
17장. 독자의 실전-----	P118
에필로그-----	P139

## 프롤로그

왜 수십 년간 같은 방법을 반복하고 있는가.

주제문을 찾아라. 접속어를 표시하라. 문단 번호를 매겨라. 이 방법들은 어제오늘 나온 것이 아니다. 내가 학생이었을 때도 있었고, 지금도 교실에서 통용된다. 수십 년째 바뀌지 않았다.

왜 바뀌지 않는가. 틀렸기 때문이 아니다. 맞기 때문이다. 주제문은 실제로 있고, 접속어는 실제로 흐름을 만들고, 문단은 실제로 구조를 가진다. 방법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

그런데 왜 여전히 막히는가. 학생은 방법대로 했는데 문제를 틀린다. 교사는 방법대로 가르쳤는데 학생이 이해하지 못한다. 방법은 맞는데 결과가 안 나온다. 이 간극을 우리는 너무 오래 방치해왔다.

이유는 하나다. 방법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방법을 작동시키는 눈이 없기 때문이다. 안경알이 아무리 좋아도 안경을 쓰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것은 더 좋은 방법이 아니다. 텍스트를 보는 눈이다. 이 책은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다. 눈을 만든다.

눈이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장을 읽었는데 글이 없다. 단어는 알고 문장도 이해했는데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는 순간 앞 문장이 사라진다. 문단을 읽었는데 지문이 없다. 각 문단의 내용은 파악했는데 지문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른다. 요약을 했는데 요약이 아니다. 중요해 보이는 문장을 골랐는데 그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하지 못한다.

이것이 눈이 없는 상태다. 눈이 없으면 방법은 작동하지 않는다. 주제문을 찾으라고 해도 어떤 문장이 주제문인지 보이지 않는다. 접속어를 표시하라고 해도 그 접속어가 앞뒤 문장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보이지 않는다. 문단 번호를 매겨도 문단들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 보이지 않는다. 방법을 수행하고 있는데 텍스트가 보이지 않는다.

왜 보이지 않는가. 프레임이 없기 때문이다. 프레임은 도구가 아니다. 전환이다. 안경을 쓰면 더 잘 보이는 것이 아니다.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매체가 바뀌면 세계가 바뀌듯, 프레임이 바뀌면 텍스트가 바뀐다. 같은 지문을 읽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구조가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다. 더 열심히 읽어서가 아니다. 다르게 보기 때문이다. 기존 독해법은 방법을 줬다. 이 책은 프레임을 준다.

프레임이 생기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텍스트가 층위로 보이기 시작한다. 문장이 문장으로만 보이지 않는다. 문장이 앞 문장의 정보를 받아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보인다. 문단이 문단으로만 보이지 않는다. 문단이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 단위로 보인다. 지문이 지문으로만 보이지 않는다. 지문이 하나의 관점을 구축하는 설계로 보인다.

그리고 그 순간 평가원이 보이기 시작한다. 평가원은 독해 이론을 공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독해 이론이 기술하는 방식 그대로 지문이 조직된다. 좋은 글은 반드시 일정한 방식으로 조직되기 때문이다. 문장은 정보의 흐름을 따르고, 문단은 기능의 위계를 가지며, 지문은 하나의 논리를 향해 설계된다. 평가원은 그 설계를 측정한다. 프레임이 있으면 출제자의 설계가 보인다. 설계가 보이면 지문이 달라 보인다. 이 책은 그 프레임을 만드는 책이다.

눈이 없는 상태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세 장면으로 보여준다.

첫 번째 장면.

학생이 문장을 읽는다. 이해했다. 다음 문장을 읽는다. 이해했다. 세 번째 문장을 읽는다. 그런데 첫 번째 문장이 사라졌다. 문장을 이해했는데 문장들이 연결되지 않는다. 이것은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장면.

학생이 문단을 읽는다. 내용을 파악했다. 다음 문단을 읽는다. 파악했다. 지문을 다 읽었다. 그런데 지문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른다. 문단을 이해했는데 지문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문단들이 모여 무엇을 만드는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세 번째 장면.

학생이 요약을 한다. 완성했다. 교사가 묻는다. 글쓴이가 결국 무엇을 주장하는가. 학생이 답하지 못한다. 요약을 했는데 논지가 없다. 이것은 글쓴이가 왜 그렇게 썼는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세 장면의 공통점은 하나다. 수행은 있는데 눈이 없다.

## 그렇다면 눈은 어떻게 생기는가

눈은 훈련으로 생기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눈 없이 하는 훈련으로는 생기지 않는다. 같은 방법을 반복해도 눈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다. 방법을 반복하는 것은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다. 동작이 아무리 정확해도 보이지 않으면 텍스트에 도달하지 못한다.

눈은 프레임이 바뀔 때 생긴다. 프레임이 바뀐다는 것은 텍스트를 보는 방식 자체가 바뀌는 것이다. 문장을 단위로 보던 것을 정보의 흐름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 문단을 내용 덩어리로 보던 것을 기능의 단위로 보기 시작하는 것. 지문을 정보의 집합으로 보던 것을 하나의 논리 설계로 보기 시작하는 것.

이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 요약이 달라진다. 중요한 문장이 왜 중요한지 보인다. 핵심어가 왜 핵심인지 보인다. 글쓴이가 왜 그 순서로 썼는지 보인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요약이 요약이 된다. 이 책은 그 전환을 만드는 책이다.

프레임이 생기면 독해가 왜 달라지는가. 한 가지 이유가 있다. 예측이 생기기 때문이다. 프레임이 없는 독자는 다음 문장이 무엇을 말할지 모른다. 읽히는 대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앞 문장이 사라진다. 정보가 축적되지 않는다.

프레임이 있는 독자는 다르다. T-R 흐름이 보이면 다음 문장이 신정보를 가져온다는 것을 안다. RST 가 보이면 이 문장이 핵심인지 위성인지를 판단하면서 읽는다. 거시구조가 보이면 지금 읽는 문단이 지문 전체에서 어떤 역할인지를 동시에 처리한다. 예측이 생기면 정보가 자리를 잡는다. 자리를 잡은 정보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이 프레임이 있는 독자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이유다. 더 열심히 읽어서가 아니다. 다르게 처리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네 개의 프레임을 순서대로 장착한다.

첫 번째는 문장을 보는 프레임이다. T-R 구조는 문장이 어떻게 정보를 이어받고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준다. 문장과 문장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이기 시작하면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

두 번째는 구조를 보는 프레임이다. RST는 문장들 사이의 위계를 보여준다. 어떤 문장이 핵이고 어떤 문장이 위성인지 보이기 시작하면 버려야 할 것과 남겨야 할 것이 갈린다.

세 번째는 전체를 보는 프레임이다. 거시구조는 문단들이 모여 하나의 의미를 만드는 방식을 보여준다. 문단 하나하나가 아니라 지문 전체가 무엇을 향하는지 보이기 시작하면 요약이 달라진다.

네 번째는 논리를 보는 프레임이다. 논증구조는 글쓴이가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를 보여준다. 주장과 근거와 전제와 반박이 어떻게 배치되는지 보이기 시작하면 출제자의 설계가 보인다.

네 개의 프레임은 따로 작동하지 않는다. 문장을 보는 눈과 구조를 보는 눈과 전체를 보는 눈과 논리를 보는 눈이 동시에 켜질 때, 텍스트가 비로소 하나의 세계로 보인다. 프레임을 바꾸면 텍스트가 보인다.

## 1 부. 프레임이란 무엇인가

프레임은 방법이 아니다. 방법은 절차를 바꾼다. 프레임은 시야를 바꾼다.

같은 지문을 읽어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 보인다.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정보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보이는 눈, 문단 안에서 핵과 위성이 갈리는 것이 보이는 눈, 지문 전체가 하나의 논리를 향해 수렴하는 것이 보이는 눈, 글쓴이가 왜 그 순서로 썼는지 보이는 눈. 이 눈들이 생기는 순간, 텍스트는 더 이상 읽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된다.

1 부는 그 전환이 무엇인지를 묻는다. 프레임이 생기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그리고 수능 비문학은 정확히 어떤 눈을 요구하는가.

## 1 장. 네 개의 프레임

평가원은 독해 이론을 공부하지 않는다. 그런데 수능 지문을 T-R 로 분석하면 정확히 T-R 흐름이 나온다. RST 로 분석하면 핵과 위성이 선명하게 갈린다. 거시구조로 분석하면 삭제와 일반화와 구성이 작동하고 있다. 왜인가. 이론이 글의 본질을 기술하기 때문이다. 평가원이 좋은 지문을 만들면 자동으로 이론의 구조가 나타난다. 이론이 출제의 설계도가 아니라, 좋은 글이 이론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평가원이 측정하는 것은 정보를 기억하는 능력이 아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정보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추적할 수 있는가. 문단에서 핵심과 부연을 가릴 수 있는가. 지문 전체에서 글쓴이의 논지를 압축할 수 있는가. 그 논지에 새로운 사례를 적용할 수 있는가.

이것이 수능 비문학이 묻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정확히 네 개의 프레임이 기술하는 것이다.

텍스트는 동시에 여러 층위에서 작동한다. 문장이 있고, 문단이 있고, 지문 전체가 있다. 이 세 층위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문장이 모여 문단이 되고, 문단이 모여 지문이 된다. 그런데 단순히 모이는 것이 아니다. 층위가 올라갈 때마다 이전 층위에 없던 것이 생긴다.

문장에는 없던 논리가 문단에서 생긴다. 문단에는 없던 관점이 지문 전체에서 생긴다. 이것이 창발이다. 그리고 독해는 이 창발을 추적하는 일이다. 네 개의 프레임은 이 추적을 가능하게 한다.

프롤로그에서 안경 이야기를 했다. 안경을 쓰면 더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프레임이 바로 그 안경이다. T-R은 문장의 흐름을 보는 안경이다. RST는 문단의 골조를 보는 안경이다. 거시구조는 지문 전체를 보는 안경이다. 논증구조는 글쓴이의 설계를 보는 안경이다. 안경이 네 개다. 그리고 이 안경들은 동시에 쓸 수 있다. 동시에 쓰는 방법을 배우는 것 — 그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 프레임 1 — T-R: 문장을 보는 눈

문장은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문장은 앞 문장에서 정보를 받아서 새로운 정보를 만든다. 앞 문장에서 받은 정보가 테마(Theme) — 구정보다. 거기서 만들어내는 새로운 정보가 레마(Rheme) — 신정보다. 이 T-R 흐름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다.

T-R 프레임이 생기면 문장이 달라 보인다. 이 문장이 앞에서 무엇을 받았는가. 그리고 다음 문장에 무엇을 넘겨주는가. 문장이 정보의 흐름 속에서 보이기 시작한다.

평가원은 이 흐름을 정확히 추적할 수 있는가를 묻는다. 지시어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조건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전환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 이것들은 전부 T-R 흐름의 문제다.

## 프레임 2 — RST: 구조를 보는 눈

문장들은 같은 무게를 갖지 않는다. 어떤 문장은 핵이다. 그것이 없으면 문단의 의미가 무너진다. 어떤 문장은 위성이다. 핵을 설명하거나 예를 들거나 반박을 제시한다. 위성은 핵을 보조하지만 핵을 대체하지 못한다.

RST 프레임이 생기면 문단이 달라 보인다. 어떤 문장이 핵인가. 어떤 문장이 위성인가. 위성을 제거하면 무엇이 남는가. 문단의 골조가 보이기 시작한다.

평가원은 이 위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다. 긴 예시 뒤에 숨은 핵심 명제, 반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위성인 문장 — 이것들은 전부 RST 구조의 문제다.

### 프레임 3 — 거시구조: 전체를 보는 눈

문단이 모이면 무엇이 생기는가. 각 문단의 핵심을 다 파악해도 지문 전체가 보이지 않을 수 있다. 문단들이 어떤 관계로 연결되는지, 지문 전체가 무엇을 향하는지 — 이것은 문단 단위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거시구조 프레임이 생기면 지문이 달라 보인다. 이 문단은 삭제해도 되는가. 이 문단은 더 큰 개념으로 묶이는가. 지문 전체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무엇이 남는가. 지문의 핵심이 보이기 시작한다.

평가원은 이 압축을 정확히 수행할 수 있는가를 묻는다. 지문 전체의 논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새로운 사례에 적용하는 것 — 이것은 전부 거시구조의 문제다.

### 프레임 4 — 논증구조: 논리를 보는 눈

글쓴이는 왜 그렇게 썼는가. 주장이 있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다. 근거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가 있다. 그리고 주장에 대한 반박이 있고, 그 반박에 대한 재반박이 있다. 이것이 논증구조다.

논증구조 프레임이 생기면 지문이 달라 보인다. 글쓴이의 핵심 주장이 무엇인가. 그것을 어떤 근거로 뒷받침하는가. 어떤 반박을 예상하고 어떻게 처리하는가. 글쓴이의 설계가 보이기 시작한다.

평가원은 최근 이 구조를 집중적으로 묻는다. 두 관점의 공통점과 차이점, 특정 입장에서

사례를 판단하는 것 — 이것들은 전부 논증구조의 문제다.

## 네 프레임은 동시에 작동한다

네 프레임은 순서가 있지만 독립적이지 않다. T-R로 문장의 흐름을 잡고, RST로 문단의 골조를 세우고, 거시구조로 지문 전체를 압축하고, 논증구조로 글쓴이의 설계를 읽는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켜질 때 텍스트가 하나의 세계로 보인다.

그리고 그때 평가원의 문제가 달라 보인다. 문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지문의 어느 층위를 어느 프레임으로 봐야 하는지 묻는 것이다. 프레임이 있으면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다.

## [맛보기 — 한 문단, 네 개의 눈] 출전: 2026 교육청 3월 모의

다음 문단 하나를 네 프레임으로 동시에 읽는다.

*"버틀러는 규범이 고정된 실체로서 정체성 형성의 기준으로 작동한다는 호네트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수행성의 개념을 통해 규범과 정체성의 관계를 설명한다."*

T-R: T가 교체됐다. 호네트 T → 버틀러 T. 교체 신호는 '비판하면서'. 이 문장 이후 지문의 방향이 바뀐다.

RST: 이 문장은 핵이다. 이후 수행성 개념 설명은 이 핵을 뒷받침하는 위성이다.

거시구조: 이 문장이 지문 전환점이다. 압축할 때 이 문장을 기준으로 전환 전(호네트)과 전환 후(버틀러)를 분리해야 한다.

논증구조: 버틀러는 호네트의 보증 — "규범은 고정된 실체다" — 을 공격하고 있다. 보증 층위 반박이다. 가장 강한 형태의 반박이다.

한 문장이다. 네 눈이 동시에 켜지면 이 문장이 지문 전체에서 무슨 역할인지가 즉각 보인다. 이것이 4축 통합 독해의 실체다. 이 눈을 만드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이 지문의 완전 해체는 6 부에서 다시 다룬다.

이제 첫 번째 프레임부터 시작한다.

## 2 부 — 문장을 보는 눈 (T-R 심화)

T-R 프레임 없이 읽으면 이렇게 된다.

지문을 읽었다. 문장 하나하나를 이해했다. 그런데 문제를 보는 순간 지문이 사라진다. 어디에 뭐가 있었는지 모른다. 다시 읽으러 간다. 또 이해한다. 또 사라진다. 문장을 이해하는 것과 문장들이 연결되는 것은 다른 일이다. T-R은 그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

### # 참고

T-R 개념의 기원은 1929년 프라하 학파의 마테지우스(Mathesius)다. 이후 다네쉬(Daneš)가 문장 간 주제 진행 패턴을 분류했고, 할리데이(Halliday)가 체계기능문법 안에 흡수해 정착시켰다. 이 책에서 사용하는 연쇄·집중·분기·수렴의 네 패턴은 다네쉬(Daneš)의 주제 진행 유형과 할리데이(Halliday)의 T-R 이론을 수능 독해 맥락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6 장에서 다루는 RST 의 세 관계 — 정교화·증거·반박 — 는 만·툼슨(Mann & Thompson)의 원래 20 여 개 관계 목록을 수능 지문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핵심 세 가지로 압축한 것이다. 이론의 충실한 재현이 아니라 교육적 재구성이다. 이 점을 미리 밝혀 두는 이유는 하나다. 이 책의 분류가 독자에게 실제로 작동하는지가 기준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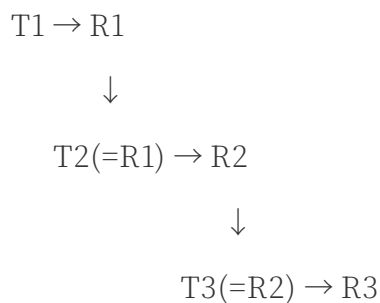
## 2 장. T-R 의 네 가지 패턴

문장은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문장은 앞 문장에서 정보를 받아서 새로운 정보를 만든다. 앞 문장에서 받아들인 정보가 T — 구정보다. 거기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정보가 R — 신정보다. 이 T-R의 연결 방식이 문단의 구조를 결정한다.

T-R이 연결되는 방식은 네 가지다. 연쇄·집중·분기·수렴. 이 네 패턴이 보이면 문단이 달라 보인다.

### 패턴 1 — 연쇄형: 흐른다

앞 문장의 R이 다음 문장의 T가 된다. 정보가 사슬처럼 이어진다.



연쇄형은 인과·과정·단계를 설명할 때 주로 나타난다. 정보가 축적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사례>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T1: 세포막 / R1: 인지질 이중층)

인지질 이중층은 친수성 머리 부분이 바깥을 향하고 소수성 꼬리 부분이 안쪽을 향

하는 구조다. (T2: 인지질 이중층 / R2: 친수성·소수성 배열)

이 소수성 꼬리 부분이 만드는 내부 환경은 물에 녹는 물질의 자유로운 통과를 차단한다. (T3: 소수성 꼬리 / R3: 물질 통과 차단)

이러한 선택적 차단 기능이 세포 내부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핵심 원리다. (T4: 선택적 차단 / R4: 세포 내부 환경 유지)

R1이 T2가 되고, R2가 T3이 되고, R3이 T4가 된다. 정보가 끊기지 않고 흐른다.

## 연쇄의 단절

평가원은 이 흐름을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만든다. T가 대명사나 지시어로 숨겨지거나, R이 다음 문장이 아니라 두세 문장 뒤에 나타난다. 흐름이 끊긴다고 느끼는 지점이 바로 평가원이 문제를 출제하는 곳이다.

## 패턴 2 — 집중형: 쌓인다

하나의 고정된 T를 축으로 삼아 여러 R이 층층이 쌓인다. T는 바뀌지 않고 R만 계속 추가된다.

T1 → R1

T1 → R2

T1 → R3

T1 → R4

집중형은 하나의 대상이나 개념의 여러 속성을 분석할 때 주로 나타난다. 같은 T에 대해 다각도로 서술한다.

<사례>

엔트로피는 무질서도의 척도다. (T: 엔트로피 / R1: 무질서도)

엔트로피는 자연 상태에서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T: 엔트로피 / R2: 자연적 증가)

엔트로피는 에너지의 총량이 아니라 에너지의 분산 정도를 나타낸다. (T: 엔트로피 / R3: 에너지 분산)

엔트로피는 열역학 제2법칙의 핵심 개념으로, 가역 과정과 비가역 과정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T: 엔트로피 / R4: 열역학 제2법칙)

T는 '엔트로피'로 고정되어 있다. R만 계속 추가되면서 엔트로피에 대한 정보가 쌓인다.

### 집중형의 함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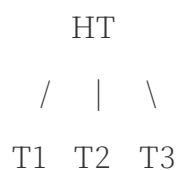
R이 많아질수록 독자는 어느 R이 핵심인지 판단해야 한다. 모든 R이 동등한 무게를 갖지 않는다. RST 프레임이 필요한 지점이 바로 여기서. 핵과 위성을 가르는 눈이 없으면 집중형 문단에서 중요한 R과 부수적인 R을 구분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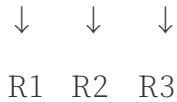
### 패턴 3 — 분기형: 갈라진다

하나의 공통 기반에서 T가 두 방향으로 전개된다. 동시에 파생되거나, 순차적으로 교체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 1. HT → T 파생 (연역형)

상위 개념이 먼저 제시되고 하위 개념들이 파생된다.





<사례>

기억은 저장 방식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HT: 기억 / R: 세 가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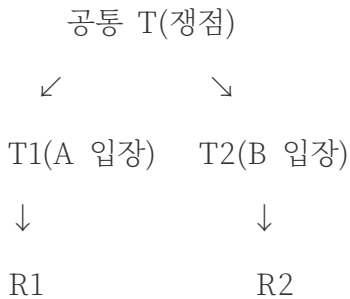
감각 기억은 외부 자극이 감각 기관에 입력된 후 1~2초간 유지되는 극히 단기적인 기억이다. (T1: 감각 기억 / R1: 1~2초 유지)

단기 기억은 감각 기억에서 선택된 정보가 수십 초에서 수 분간 유지되며, 용량에 한계가 있다. (T2: 단기 기억 / R2: 수십 초~수 분, 용량 한계)

장기 기억은 반복과 의미 부여를 통해 장기간 저장되며, 이론적으로 용량의 제한이 없다. (T3: 장기 기억 / R3: 장기 저장, 무제한 용량)

## 2.T → T 교체 (전환형)

동일한 쟁점 아래 T가 순차적으로 교체되며 전개된다. 대립형, 역사적 변천형 지문에서 주로 나타난다.



<사례>

고전역학은 거시 세계를 잘 설명한다. (T1: 고전역학)

그러나 미시 세계에서는 전혀 다른 원리가 작동한다. (T 교체: 미시 세계)

양자역학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다. (T2: 양자역학)

"그러나"가 T 교체의 신호다. 이 신호를 T-R 프레임으로 보면 단순한 접속어가 아니라 정

보 구조의 전환점으로 보인다.

## T 분기와 T 교체는 다르다

분기형의 두 번째 방식(T → T 교체)을 설명하면서 한 가지를 짚어 둔다.

T 분기와 T 교체는 겉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구조가 다르다.

T 분기는 하나의 쟁점 아래 두 T 가 동시에 공존한다. A 의 T 와 B 의 T 가 나란히 유지되면서 각자의 R 을 만들어낸다. 대립형 지문의 구조다. 독자는 두 T 를 동시에 추적해야 한다.

T 교체는 이전 T가 사라지고 새로운 T로 완전히 넘어간다. A 의 T가 비판을 받은 뒤 B 의 T가 그 자리를 대체한다. 전환형 지문의 구조다. 독자는 교체 신호를 포착하고 새로운 T로 따라가야 한다.

	T 분기	T 교체
이전 T	유지된다	사라진다
두 T 의 관계	공존·대립	대체·계승
지문 유형	대립형	전환형
독자의 과제	두 T 를 동시에 분리 유지	교체 신호 포착 후 새 T 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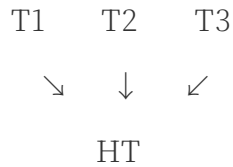
"그러나", "반면"이 나오면 T 분기를 의심한다. "비판하며", "종합한",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가 나오면 T 교체를 의심한다.

## 분기형의 함정

각 T의 R이 교차 적용될 때 함정이 생긴다. 단기 기억의 속성을 장기 기억에 적용하거나, A 입장의 주장을 B 입장의 것으로 혼동하는 오류. 평가원이 선지에서 가장 자주 활용하는 함정이다.

## 패턴 4 — 수렴형: 모인다

분기형의 역방향이다. 여러 T가 먼저 제시되고 하나의 상위 T로 모인다. 귀납적 구조다.



분기형에서는 독자가 처음부터 상위 개념을 안다. 수렴형에서는 끝까지 읽어야 상위 개념이 보인다. 이것이 수렴형이 어려운 이유다.

하위 개념들이 먼저 전개되고 마지막에 상위 개념으로 묶인다. 철학·예술·역사 지문에서 자주 나타난다.

<사례>

표현주의는 예술가의 내면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것을 예술의 본질로 본다. 형식보다 감정의 진실성이 중요하며, 왜곡과 과장도 내면 표현의 수단으로 허용된다.

인상주의는 외부 세계를 객관적으로 재현하는 대신 그 순간 화가의 감각에 포착된 빛과 색채의 인상을 담는다. 고정된 형태보다 순간의 변화하는 감각이 핵심이다.

입체주의는 하나의 고정된 시점 대신 여러 시점에서 본 형태를 동시에 화면에 배치한다. 전통적 원근법을 해체하고 대상의 본질적 구조를 재구성하려 했다.

이들은 모두 19세기 사실주의의 객관적 재현 원칙에 반발하며 예술가의 주관적 인식과 해석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근대 미술의 전위적 흐름으로 묶인다.

T1(표현주의) → R1(내면 감정 표출)/ T2(인상주의) → R2(순간의 감각/) T3(입체주의) → R3(시점 해체)



HT: 사실주의 반발 + 주관적 인식  
= 근대 미술 전위적 흐름

수렴 지점 — '이들은 모두...'

평가원이 여기서 묻는 것 — '윗글의 세 사조가 공유하는 특징을 <보기> 의 작품에 적용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수렴형을 읽는 눈

수렴 지점이 마지막에 있다. 또한 수렴형에서 수렴 지점을 알리는 신호들이 있다. '이처럼', '결국', '이 두 입장은', '공통적으로', '모두' — 이 표현들이 나오면 앞의 여러 T가 하나로 모이는 지점이다.

그런데 평가원은 이 신호를 생략하거나 약화시킨다. 신호 없이 수렴이 일어난다. 그때 독자는 스스로 수렴 지점을 구성해야 한다. 그것이 수렴형 독해의 핵심이다.

### 네 패턴 한눈에 보기

패턴	구조	방향	논리	수능 출제
연쇄형	R→T 사슬	선형	인과·과정	정보 추적
집중형	T 고정 + R 적층	수직	속성 분석	핵심 R 판별
분기형	공통 기반에서 T가 두 방향으로 전개	하향·교체	연역	교차 적용 오류

패턴	구조	방향	논리	수능 출제
수렴형	T들→HT 통합	상향	귀납	공통점·원리 적용

이 네 패턴은 문단 단위에서 작동한다. 그런데 복합 지문에서는 이 패턴들이 단독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연쇄형 안에 집중형이 있고, 분기형 안에 수렴형이 있다. 패턴들이 중첩되고 교차한다.